

## 농촌으로 들어가 예수마을을 일구는 도시교회 이야기

최 재 호(목사, 합천 외토하늘가교회)

### 무모한 일

처음에, 갑자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목회하던 제가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시골로 간다고 했을 때 저를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한 번도 농촌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열악한(?) 농촌에서 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간 이유, 목회적 고민

1983년 군에서 전역을 하고 조그만 교회 교육전도사로 시작된 저의 목회 생활은 점점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다양한 목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고민거리가 한 가지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교회학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1990년대를 정점으로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가 점점 감소해 가면서 한국교회 안에 교회학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교회학교 부흥 프로그램이 연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걷는 교회학교의 큰 흐름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나 소수의 교회들이 열심히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교회학교는 점점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속에 교회학교에 대한 고민도 점점 커져 갔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나 평소에 느낀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화목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도 막상 심방해서 살펴보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소통부재는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가정의 현실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아져서, 각 가족 구성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적응이나 혹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도 결국에는 가정들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도 교회도 건강성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속에 가정에 대한 목회적 고민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서구화되면서 노후의 삶의 형태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부모의 노후문제는 부모 몫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

서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기보다는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있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고 또한 일반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요즘 들어 요양원으로 심방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양원으로 가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으로 심방을 가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부분의 노성도(老聖徒)들이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대기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심방 가서 만나면 대부분 “너무 외롭다”, “빨리 죽고 싶다”, “살려 달라”, “나를 내 보내 달라” 등등의 호소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노성도들 가운데는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노후는 교회가 그분들을 돌보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 고민을 넘기 위한 몸부림

이 세 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이면서도 목사로서의 제 문제였고,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면서도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하나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문제입니다. 교회학교는 1780년 영국의 글로스터지방에 살고 있는 로버트 레이크스가 공장지대에 사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한 것이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세상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으며 그 영향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이후 240년이 지난 지금,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학교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어서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이들이 과잉 학교시스템에 갇혀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학교시스템을 가지고 가야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학교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대안이 바로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과잉학교교육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어른 세대들이 누렸던 아름다운 놀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만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매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놀이를 잃어버린 오늘의 아이들에게 놀이를 찾아주는 것이 새로운 교회학교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시설들은 이제 놀이시설로 바뀌어 지고, 교회학교 예산은 놀이예산으로 바뀌어 져야 합니다.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건강성을 찾아주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되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가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둘이 따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대화와 소통부재로 인한 개별화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는 곧 사회의 건강성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채널이 요원합니다. 정부도 사회조직도 ‘둘이 한 몸되는 가치’를 세워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이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 교회만이 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둘이 한 몸의 가치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룬 주역들이 점점 요양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복지혜택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가장 비복지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양원에서의 노후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으로의 귀향을

준비하는 처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세대들의 노후를 돌보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참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구조적 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 대안으로서의 예수마을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수마을’이라는 해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도시형 교회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에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마을’을 주신 겁니다. 예수마을은 ‘빌딩형 교회형태’가 아니라 ‘마을형 교회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삶의 공유하고 나누는 마을형태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마을’은 개념상 도시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마을개념은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데 도시에서는 비싼 땅값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수마을을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바로 농촌입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땅값이 훨씬 싸고, 또 마을을 이룰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요즘은 농촌에도 도로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나 대형마트 같은 시설이 있는 대도시와의 접근성, 광통신 인터넷 같은 정보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별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시설은 영적인 특성상 복잡한 도시보다는 한적한 농촌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 예수마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대안 ‘예수마을’을 세우기 위한 장소를 찾아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 인근에서 좋은 장소를 찾아보았지만 비싼

부동산 가격과 이미 좋은 장소는 다양한 시설들이 다 점령해 있어서 도시 인근에서는 예수마을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장소를 찾다가 현재 외토하



예수마을을 만들고 있는 외토리 마을 전경

늘가교회가 세워져 있는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뒤편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강이 흐르고, 가운데는 너른 들이 있고, 수도나 전기나 도로 같은 적당한 인프라들이 준비되어 있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렇게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715번지에 외토하늘가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 교회가 아닌 마을로

농촌에 들어가서 ‘예수마을’을 세울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농촌마을들이 오래된 유교전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교회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저항감 및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농촌선교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농촌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농촌에서 교회가 정착하기 어려웠습니다.

농촌에 교회가 들어갈 때 교회형태보다는 귀농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 보다는 여러 가정이 함께 들어가서 농장이나 목장, 혹은 마을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종교색깔이 없는 만큼 기존 마을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외토하늘가교회도 처음에 한 가정이 아니라 세 가정이 외토하늘가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갔습니다. 세가정이 집단귀농 형태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집단귀농형태로 들어가면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귀농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마을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덜 받을 수 있고, 초기 외로움이나 어려움 등을 서로가 협력해서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외토하늘가 교회도 초기 집단귀농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군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귀농지원자금, 농가주택지원자금, 택지단지 지원자금, 농업단지조성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서의 농사

농촌에 이주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농촌에 와서는 교인도 별로 없고 가장 먼저 자립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농사를 먼저 지어야만 했고, 그것이 목회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구마를 캐고 있는 교인들

니다. 목양을 위한 소중한 과정이며 내용입니다. 이미 틀을 갖춘 상태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사람을 상대로 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아직 농촌에서 아무 틀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농사가 꼭 필요합니다.

다. 농사를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친밀성을 만들어 가고, 농사를 통하여 목회적 새로운 역량을 키운다

면 그 과정이 잘 진행되었을 때에는 보다 효율적이고도 힘있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초보 농사꾼에서 전문 농사꾼으로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에서 목회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농촌으로 이주를 하고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농사에 ‘농’자도 모른다는 말이 바로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참깨가 있고 들깨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퇴비와 비료가 무엇인지 처음 알았고, 작물을 심을 때는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작물들은 각 심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심을 수 있는 것은 다 심었습니다. 심을 수 있는 공간은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첫해 심었던 작물의 수가 무려 30여 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몸이 서서히 망가져 갔고, 또 하나는 잘 된 농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돌보고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데 초보 농사꾼이다 보니까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심기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생기게 되었고...

두 번째 해에는 조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심을 수 있는 작물과 심기 어려운 작물,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작물과 돌보지 못하는 작물 등, 각 작물들을 구별해서 심었습니다. 그 결과 첫해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점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생산성 문제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수입성이 없는 작물들이 많았고 그로인해 헛농사를 지은 것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에는 수입성이 있는 작물과 그렇지 않은 작물들로 다시 구별을 했습니다. 수입성이 있는 작물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었고, 수입성이 없이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훨씬 농사가 규모가 있어졌고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초보 농사꾼에서 점점 전문 농사꾼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평범한 작물에서 특별한 작물로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에는 흔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작물들을 생각했습니다. 벼, 마늘, 고추, 감자, 깨, 콩, 호박 등... 그러나 한해 두해 농사를 지으면서 이러한 농사는 돈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작물을 농사지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백향과’라는 작물이었습니다. ‘백향과’는 열대작물로 대한민국에서는 기온이 안 맞아 재배할 수 없다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배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할 때 위험 부담을 크지만 만일 성공만 한다면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주변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첫해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재배를 했다가 큰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아직 재배기술이 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도전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많았고, 제 마음에도 더 계속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백향과 재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우스를 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 실패한 것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니까 여름에도 수확을 하고 겨울에도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백향과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KBS ‘6시 내고향’과 KNN ‘생방송 투데이’, CTS방송까지 방송을 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백향과 하우스가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두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평범한 작물

보다는 특별한 작물에 도전해야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작물이든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작물일 경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촌에서의 삶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KBS '6시 내고향'에 출연한 최목사와 교인들

##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 1월 1일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도시목회를 내려놓는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무런 금전적인 준비도 없이 맨주먹으로 예수마을을 세우기 위하여 농촌으로 뛰어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교회도 세워져 있고, 게스트룸, 식당, 친교실, 백향과 하우스, 주택단지 등 상상하지 못했던 시설들이 세워져 있고, 포클레인, 트랙터, 콤팩트, 건조기, 냉동창고, 경운기, 트럭 등 농사지를 수 있는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한 푼도 없이 시작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외토하늘가마은은 이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우리를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외토하늘가마을을 주목하고 다양한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농촌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것이 서툴지 않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농사든지 잘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농사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토하늘가마을로 귀농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외토하늘가교회의 비전

외토하늘가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외토하늘가교회는, 처음에 제기한 세 가지 한국교회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도들은 좀 더 구체화 되고 커졌습니다. 앞으로 외토하늘가교회는 두 가지 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하나는, ‘농촌에서 도시를 복음화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도시교회들은 성을 점령하기 보다는 자기 성을 지키기에도 힘든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보면 점점 더 한국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도시에서 나와서 농촌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복음으로 도시를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강단, 최재호 목사

외토하늘가교회가 바로 그런 베이스 캠프 교회입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고, 농촌에서 고립되

거나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시와 소통해야 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대안들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어야 합니다.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막막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면, 언젠가는 외토 하늘가교회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이 함께 할 경우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 제 안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들과 도시교회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은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점점 인구가 줄고 폐쇄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농촌이 죽어가고 농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때에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길을 찾아간다면 한국교회는 농촌을 통하여 도시를 다시 복음화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도시교회에서 한계를 느끼거나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농촌으로 뛰어 드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농촌은 광야지만 그만큼 기회가 또한 많습니다. 농촌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해 봅시다. 農